

제목: "그 때가 바로 지금이다"

말씀: 누가복음 21장 10-19절

예수님께서 말씀 하신 마지막은 일어나기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러한 것을 돌아보고 앞으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 날을 준비합니까?

1. 변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라 (14절)
2. 고백으로 살라 (15절)
3. 인내하며 부활의 십자가를 붙잡으라 (19절)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김유정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난민)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된 다민족 교회 (뉴저지)
김인선/신유선 선교사	현지 교회, 사랑의 집짓기, 학교, 밥퍼 사역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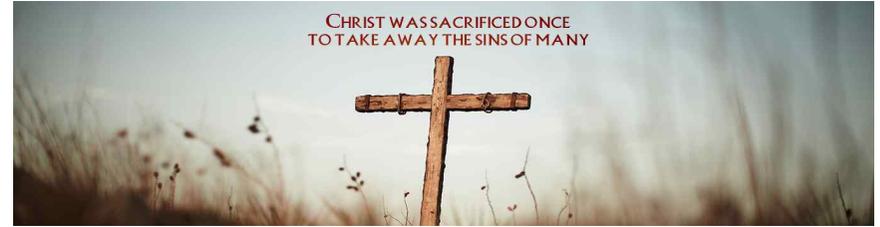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2절)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Hebrews 12: 1-2)



주일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nt: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nt
- * 찬양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누가복음 21장 10-19절 설교자
 Scripture Reading Luke 21: 10-19 신약 132 페이지 President
- 말씀 "그 때가 바로 지금이다" 김성민 목사
 Message Trust God's Timing Rev. Kim
- 성찬식 다같이
 Communion All Together
- 헌금/기도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nt
- * 찬양/헌신기도 주님 내가 여기있사오니 다같이
 Praise and Prayer Lord Here I am All Together
- * 축도 김성민 목사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생활의 밸런스)

요즘 모든 것이 생각 같이 흘러가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다. 생활 용품들 가격이 오른 것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흔하던 것이 흔치 않고 구하기도 어려운 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주 초 거의 두 달 동안 구할 수 없었던 물품을 다시 구하기 위하여 마켓을 찾았으나 결국 구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를 전에 가보니 그 물건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목마름에 물을 마시듯 한 20여개를 바구니에 넣었다. 그것이 없어서 한동안 마음고생을 했기 때문이다. 그 때 내 뒤로 사러 올 사람이 생각났다. 아직 많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나와 같이 고생을 할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대로 바구니에 집어넣고 왔다. 이제 한숨을 돌렸다. 그런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 모두가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집에 쌓아놓은 것이 여러 개 있다는 것을 오늘 발견했다. 그중에 하나가 휴지다.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초기에 사다가 놓은 휴지가 아직도 큰 통으로 4개나 있었다. 아마 그것을 다 사용하려면 1년 가까이 되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욕심은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없어서 혼이 난 것도 있고 아니면 미리미리 준비해 둔다는 생각으로 쌓아 놓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밸런스가 맞지 않는 세상에서 나도 생활에 밸런스 잃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하여 쌓아 놓는 일들이 더 심해지는 것 같다.

왜 이러한 일들이 생겨날까? 그것은 불안 때문이다. 없으면 불편하고 살 수 없을 것 같은 불안함이다. 그래서 지혜를 짜낸 것이 미리 사다가 쌓아 두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완전할까? 아니다. 또 다른 엉뚱한 것이 부족해서 또 다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쌓아 두기 위하여 마켓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이러한 불안함은 현실의 불안함이지만 내면 저 깊은 곳 나의 중심에 불안함은 아닐까? 걱정이 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연결이 안 되는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부족하고 답답할 때에 먼저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보다는 내 앞에 있어야 할 풍성함을 더욱 의지하는 습관이 나의 영적인 삶의 밸런스를 잃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족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의지하기 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고 나의 열심이 그것을 채워 놓은 만족에 걱정을 벗어버리는 내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되는 일이 되풀이 되다가 보면 결국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황당한 생각도 하게 된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그 걱정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은가? 또한 내가 채운 것 같은 풍성함도 결국 하나님께서 채워 준 것이 아닌가? 그러니 이제 내가 나의 삶에 밸런스를 맞추기 위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더욱 확실히 보기 위하여 움직이고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그 걱정도 하나님께 가져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시는 복된 시간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후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6)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하여 (북아프리카 사람들)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개신교 목회자들을 위하여
김인선 선교사:	니카라과의 사역을 위하여 (교회 개척과 학교)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새벽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가능한 분들은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경건의 시간

아무리 바빠도 경건의 시간을 빼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5. 3/4월 행사

3월 2일(수)	사순절 시작
4월 10일(주)	종려주일
4월 11-16일	고난 주간
4월 17일(주)	부활절

6.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